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 준공 개관식에 참석한 용흥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강병삼 연구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등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정성학 기자·사진=전북도 제공

전북혁신도시를 연구개발 허브로

테크비즈센터 개관, 연구특구 지원기관 집적화 산·학·연 교류 활성화, 기술 사업화 촉진 기대

정성학 기자 csh@sjnews.com

전북혁신도시를 연구개발 허브로 탈바꿈시킬 거점 기관이 문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 준공 개관식을 갖고 혁신도시를 농생명과 첨단소재로 특화된 연구개발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테크비즈센터는 전북연구개발특구(전주·완주·정읍) 지원기관 집적화 시설이자, 창업 보육시설로 총 35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국민연금공단 본사 옆에 건설됐다.

입주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를 비롯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북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소기업지원센터 등이다. 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산·학·연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기술 사업화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해져 연구개발특구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기술 창업도 촉진시킬 것이라 기대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테크비즈센터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과 첨단소재 산업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

한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북경제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성장엔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센터 개관식은 용흥택 과기정통부 1차관, 강병삼 연구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한편, 전북특구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 주관 ‘2020년도 전국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에서 대전 대덕특구와 함께 최상위 등급인 우수 특구로 평가됐다. 특구 출범지후 4년간(2015~19년) 기업 매출액은 2조4,000억 원에서 4조7,000억 원으로, 고용은 1만6,000명에서 2만 명으로, 입주 기관은 437개에서 660개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142개사가 설립됐고 첨단기술기업 지정 19개사, 창업 189건, 기술이전과 출자는 각각 336건과 211억 원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전북도교육청, 필리핀 교원 정보화 연수 지원

교류협력국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 대상 SW교육 원역 연수과정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교류협력국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여간 교육정보화 원역연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상호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간의 초청연수를 온라인 원격연수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도내 초·중등 교사 13명으로 구성된 전북 이터닝 세계화 지원단에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10차시 분량으로 운영된다. 특히 효율적인 연수 진행을 위해 전북 교

사단과 필리핀 연수단이 모두 참여하는 실시간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양국 교원 간 상호매칭을 통해 상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으로 상호방문 교류는 잠시 멈췄지만 그동안 쌓아 온 유대관계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연수가 양국 교원의 참여의지를 높여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사대부고 에코시티 이전 추진 무산

27일 찬반투표 결과...압도적으로 반대표 나와 총동창회 “도교육청 일방적 추진, 당연한결과”

전북사대부고 에코시티 이전이 무산됐다. 27일 학교 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 이전 찬반투표 결과 총 선거인 1107명 가운데 반대 1016표, 찬성 85표, 무효 6표의 결과가 나왔다. 한홍열 총동창회장은 “명분없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전북대학교측과 만나 학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도교육청의 학교 에코시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총동창회와 학교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복정권 기자

하림, 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48억 부과

국내 최대 육가공사 중 하나인 익산 하림그룹 계열 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림 계열사인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터, 포크랜드, 선진한마를, 대성축산 등 8개사를 비롯해 올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하림 계열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약 5년간 김홍국 회장의 장남이 소유한 올품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 약품을 비싸게 사준대거나 사료 첨가제 유통 과정에서 올품을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사이다. 하림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에 본사를 둔 하림그룹은 닭고기 전문기업으로 시작해 종합식품회사 도약을 목표로 최근 라면 시장까지 뛰어들어 주목받고 있다. /정성학 기자



자치경찰위, 정책자문단 구성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기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 맞춤형 치안 정책 개발을 돕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이다. 정책자문단 구성은 전국 자치경찰 중 첫 사례로, 전달자와 경찰이란 영문을 결합한 가칭 ‘메신저 폴(Messenger Pol)’로 명명됐다. 메신저 폴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

진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27일 도청에서 남천현 우석대 총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 홍순직 전주대 총장, 각 대학 재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자치경찰 발전에 공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은 도민의 의견을 무겁게 듣고 치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청년정책 자문단의 젊고 참신한 생각과 의견이 치안에 반영되어 도민의 안전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학, 그리고 대학생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전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880

사기

피고인 김원기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0. 27.

판사 정우석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계획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 허가)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2항,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에 의거 발전사업내용의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발전소명 : 평촌10호,11호,12호 태양광발전소
2.설치위치 : 전북 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25,26,28번지
3.면적 : 총4,467㎡
4.설비용량 : 총300kw
5.사업개시 예정일 : 2022.12
6.운영기간 : 2022.12 ~ 2042.12 (20년간)
7.대표자 : 김정호(010-5665-5511)
8.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9.제출 및 열람장소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열람기간 : 2021.11.1~
-열람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사업계획서

2021. 10. 28.

평촌10호,11호,12호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구독신청 063) 280-5712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신문이 만들어 집니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현황판 / 액자 전문점

동일화랑 · 액자 · 앨범 · 몰딩

고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 동일액자에서 준비하세요

· 각종 액자 제작 전문 도 · 소매
· 사진 인화 사진 출력

▷ 해바라기 사진
▷ 청사과 사진
▷ 메탈액자(알미늄 판)
▷ 디아섹 액자(아크릴)
▷ 휴대폰사진을 액자로
▷ 최고급 거울 제작

액자 공장 (전주시청 ↔ 세이브존 중간사이)
T.063. 282-6444 F.231-6443

지구를 살리는
늘 푸른 생각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늘 푸른 생각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탄소운동 첫걸음
종이컵 줄이기